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The Establishment Date of 'Jipangoguryeo bi' Shown by the
Calligraphic Point of View

鄭 鉉 淑 (Jung, Hyun-so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結構 분석을 통해 본 비의 건립 시기 |
| 2. 비의 발견 경위 | |
| 3.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한 연구 동향 | 5. 맺음말 |
| 3.1 중국의 연구 성과 | <참고문헌> |
| 3.2 한국의 연구 성과 | |

<초 록>

본고는 서예학적 측면에서 <集安高句麗碑>의 글씨 분석을 통해 건립 시기를 논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 중국의 耿鐵華는 건립 시기를 광개토왕(재위 391-412)대로 보았고, 한국 연구자들도 대부분 광개토왕대로 보아 ‘高句麗 最古碑’임을 주장했다. 특히 윤용구와 여호규는 7행 4-8자를 ‘好太聖王曰’로 읽어 광개토왕이 건립한 비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張福有와 孫仁杰, 한국의 선주선은 그것을 각각 ‘丁卯歲刊石’, ‘丁卯年刊石’으로 읽어 건립년을 427년으로 보고 장수왕이 재위 15년에 아버지 광개토왕을 위해서 건립한 비라고 주장했다.

‘丁卯’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書體이다. 비문은 파책이 비교적 선명한 예서로 쓰였고 해서의 필법도 보여 예서에서 해서로의 과도기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파책이 없거나 약한 古隸인 <광개토왕비>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비의 형태다. 圭形의 碑首가 자연석인 <광개토왕비>보다 진일보되어 그 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文體다. 비의 문체가 <광개토왕비>보다 더 세련되어 그 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要語: 集安高句麗碑, 長壽王代, 丁卯年, 廣開土王碑, 高句麗風 隸書

* 본 논문은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2013. 5. 23)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열화당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hyun.s.jung@gmail.com)

접수일: 2013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date of 'Jipangoguryeo bi' by the comparison of character's composition. Geng Tiehua, a Chinese scholar, insisted it as a stele of Gwanggaetowang period. Most of Korean scholars followed Geng's argument. Yun Yonggu and Yeo Hogu read the characters in the seventh column as “好太聖王曰” and insisted that Gwanggaetowang built it. Meanwhile, Zhang Fuyou and Sun Renjie, Chinese scholars, read them as “丁卯歲刊石”, and Sun Joosun, a Korean scholar, “丁卯年刊石”, meaning that it was built in 427, 15th year of Jangsuwang.

In addition, Sun Joosun, Cho Soohyun, and I stated that it was written in the clerical script with wavy strokes and therefore built after 'Gwanggaetowang bi' with little wavy strokes. Kwon Inhan also insisted that the sentence was more sophisticated, compared to that of 'Gwanggaetowang bi', and accordingly it could be build after 'Gwanggaetowang bi'. Its shape with a triangular head was also developed when compared to that of 'Gwanggaetowang bi' in natural stone.

Key words: Jipangoguryeo bi, Jangsuwang period, *jeongmyo*,
Gwanggaetowang bi, Goguryeo clerical style

1. 머리말

2012년 7월 29일, 중국 吉林省 集安市 麻線鄉 촌민 馬紹彬에 의해 한 기의 고구려비가 발견되었다. 이후 이 <集安高句麗碑>¹⁾는 한·중 학계의 화두가 되었다. 2013년 1월, 중국에서 최종보고서²⁾가 나온 후 국내 사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연일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는 주로 비의 판독과 내용에 집중되었는데, 마모로 인한 판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러 종의 판독안이 발표되었다. 판독된 글자에는 <광개토왕비>에 의거한 推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연구 중에서 사학계로는 고구려발해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서예학계로는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의 발표회가 있었다.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는 서예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서체적인 측면에서 비의 판독을 검토하고, 서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건비년을 丁卯 427년으로 여기고 <광개토왕비>(414)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그것을 광개토왕(재위 391-412)대로 상정하여 고구려 最古碑로 본 사학계의 보편적인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集安高句麗碑>의 발견 경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서예학적 측면에서 비의 건립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비의 발견 경위

<集安高句麗碑>는 2012년 7월 29일 오전, 중국 吉林省 集安市 麻線鄉 麻線

1) 集安文物局,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 『中國文物報』(北京, 2003. 1. 4), 제2판에서 “전문가들의 논증 후 돌비석이 고구려시기 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集安 高句麗碑’라고 이름을 정하고 연대가 고구려 호태왕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발표했다. 『中國文物報』의 조사보고 개요 번역은 서영수, “‘지안 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참조(『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 2013에 게재됨).

2) 集安市博物館 編著, 『集安高句麗碑』(吉林: 吉林大學出版社, 2013).

河 서쪽 강변의 舊橋 아래에서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촌민 馬紹彬이 발견했다. 그는 포도나무 가지 지지대를 고정시킬 석재를 구하던 중 이 석판을 습득했는데, 거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석임을 알게 되었다. 7월 30일 오전, 그는 비의 발견 경위를 集安文物局에 소상히 신고했고, 문물국에서는 더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중국 측 은 8월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발견 경위를 발표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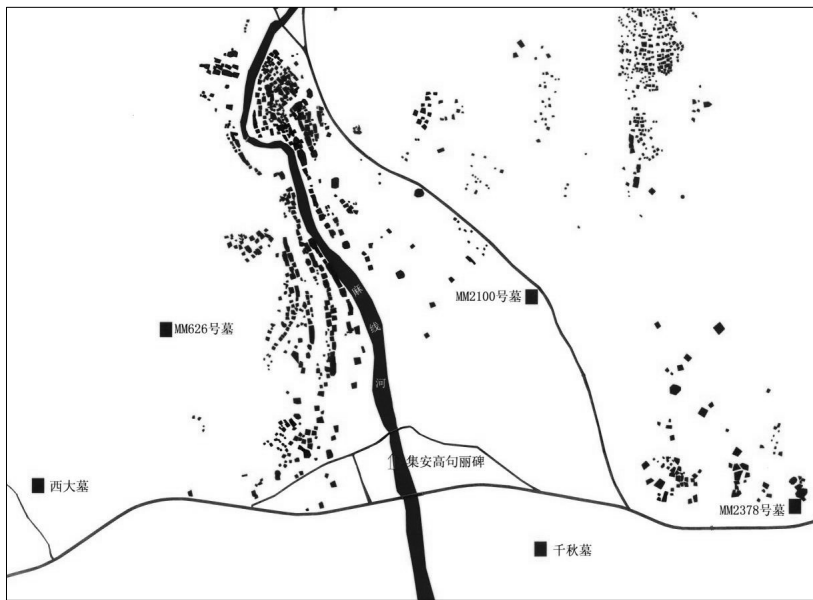
그것에 의하면 <集安高句麗碑>는 집안시 도시구역에서 서남쪽으로 3.5km 떨어진 마선향 마선하 오른쪽 연안 강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중심 지점의 지리좌표는 동경 126°08'28", 북위 41°05'46"이며, 해발고도는 184m이다. 남쪽으로 마선하 新橋에서 110m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마선하 강변 양측에 고구려 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비석은 고구려왕릉 4기의 중간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동남쪽의 천추묘로부터 458m 떨어져 있고, 동북쪽의 JMM2100호 왕릉과는 659m 거리에 있다. 서북쪽의 JMM626호 왕릉과는 861m 떨어져 있으며, 서쪽의 西大墓에서는 1149m 떨어져 있다(<그림 1> 참조). 비석의 원 위치는 마선하 西岸의 언덕지대였다. 현재 강바닥은 언덕에서 4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비석을 세울 당시 지형조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마선하 서쪽 강변의 언덕지대는 비교적 평평한 개활지인데, 이곳은 임비 당시 수묘인 연호의 집거지이자 제사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3) 崔貴東, 劉景雲, “村民發現古文物及時報警受表彰,” 『北方法制報』(長春, 2012. 8. 9). <<http://www.bffzb.com/Qnews.asp?ID=12029&QID=1970>>.

崔貴東, 劉景雲, “麻線鄉村民發現刻字石板疑似文物,” 『集安市政府公衆信息網』(2012. 8. 9). <<http://www.jilin.gov.cn/read.asp?xwid=38066>>.

北方法制報, “集安市麻線鄉村民發現刻字石板疑似文物,” 『百度古城集安』(2012. 8. 10). <<http://tieba.baidu.com/p/1783602791>>.

4) 孫仁杰,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文字比較,”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a. 4. 13), 47.; 孫仁杰, “집안 고구려비의 판독과 문자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b), 222.



<그림 1> 麻線墓區에서 <集安高句麗碑> 위치, 集安博物館 編著, 圖5

3.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한 연구 동향

<集安高句麗碑>는 고구려비이고, ‘동북공정’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결부되어 한·중 학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무엇보다 국내 학계를 들뜨게 한 것은 일부 사학자들이 7행 4-8자를 ‘好太聖王曰’로, 같은 행 10, 11자를 ‘戊子’(388)⁵⁾로 판독함으로써 건립 시기가 <광개토왕비>(414)보다 빨라 ‘고구려 最古碑’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내 학계의 견해는 중국 首都博物館 홈페이지와 『文物信息网』에 소상히 소개되었다.⁶⁾

5) ‘戊午’(418)라 보기도 한다. 張福有는 ‘戊申’(408)으로 읽었다. 그러나 글자 결구상 ‘戊子’가 가장 적합하다.

6) 首都博物館.

<http://www.capitalmuseum.org.cn/zjsb/content/2013-02/21/content_50921.htm>.

이 비가 중국의 ‘제2의 동북공정’이라며 위비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⁷⁾ 중국은 위비설, 조작설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고구려사, 백두산 연구를 총괄하는 고위 관료인 張福有는 “고구려비의 진실성은 ‘의심할 바 없다(毋庸置疑)’”고 잘라 말했다. 또한 通化師範學院 高句麗研究院長인 耿鐵華는 “자신의 추측에 의거하여 근거 없는 의심만 하는 것은 학술적이지 못하며, 중국의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대응했다. 그는 ‘비의 출토 상황’, ‘비의 형태’, ‘비문의 내용’으로 세분하여 위비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⁸⁾

서영수는 “현재 비석의 실물이나 원탁본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보도한 사진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석의 진위나 내용 전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중략) ‘신고구려비’의 내용은 광개토대왕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비석이 위조품이 아니라면 태왕비는 물론 충주에서 발견된 증원고구려비와 더불어 당대 사료가 희소한 고구려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⁹⁾라며 비의 가치는 높이 평가하면서 진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진위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비의 내용, 성격, 건립 시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한·중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비의 출토지가 중국이므로 초기 연구는 중국에서 먼저 진행되었고, 한국의 연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연구 성과부터 살펴보겠다.¹⁰⁾

『文物信息网』.

<<http://www.ccrnews.com.cn/a/xinwengonggao/news/gonggao/2013/0220/44646.html>>.

- 7) 문성재, 『중앙일보』, 2013. 1. 17, 제2면; 2013. 1. 31, 제23면.
- 8) 耿鐵華, “中國集安出土 高句麗碑의 眞實性,”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a. 4. 13); 耿鐵華,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진위문제,”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b) 참조.
- 9) 서영수, “지안 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102, 109 참조.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 2013에 게재됨).
- 10) 일본은 한·중의 연구를 인용 보도하는 정도이며, 상세한 연구는 아직 없다. 정현숙, “〈集安 高句麗碑〉의 발견 경위와 한·중·일의 연구 동향,”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비교』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발표회 자료집, 2013. 5. 23), 9-10 참조.

3.1 중국의 연구 성과

비석(<그림 2>)이 발견되자 集安博物館에서는 이를 중시하여 곧바로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과학적인 보호 관리와 순차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3년 8월 14일, 비문 연구와 문자 판독을 위해 集安文物局의 高遠大, 集安博物館의 周榮順, 郭建剛, 董峰, 劉賓 등이 千秋墓 保護管理所 건물 앞에서 비석 탁본 작업을 진행하였다.¹¹⁾ 오전 10시경, 1호 탁본인 <周榮順本>(<그림 3>)이 완성되었는데, ‘始祖鄒牟王之創基也’(<표 1> 참조), ‘祭祀’, ‘亦不得其買’, ‘碑文’ 등의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孫仁杰은 <孫仁杰本>을 떴다.

탁본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논의한 결과 비문의 서체와 내용이 <광개토왕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고구려 비각일 것이라는 초보적 결론을 내렸다. 점심 무렵 탁본 작업을 마치고 탁본은 박물관에서 보관하였다. 오후에 비석을 천추묘 보호관리소로부터 박물관으로 옮겨 특수 저장고에 보관하고 직원을 배치해 보호하도록 했다. 더불어 <集安高句麗碑> 보호팀과 연구팀을 구성해 비석에 대한 보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석 탁본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洛陽文物考古研究所의 비석 탁본 전문가인 江化國, 李光夫를 초청해 정밀 탁본 작업을 진행하여 <江化國·李光夫本>을 떴고,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의 于麗群도 <于麗群本>을 만들었다.¹²⁾

11) 집안박물관 학예관이 탁본하는 모습을 2012년 8월 14일에 한국 관광객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상이 2013년 2월 28일 게시되었다. 필자가 비의 글씨를 숙지한 후 수십 차례 동영상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소장본이라는 한상봉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 측이 발표한 문물보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가 “<集安高句麗碑>에 관해서 왜 서예학계는 침묵하는가,” 『月刊書藝』 제381호(2013. 5), 145쪽에서 글자를 분별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을 수정한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ABqF1C1S4jU#t=16s>.

12) 상세한 탁본 일람은 尹龍九, “集安 高句麗碑의 拓本과 判讀,”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b), 19, <표 1> 참조. 탁본 이미지는 集安市博物館 編著(2013), 191-209 참조.



<그림 2> 출토 직후 <集安高句麗碑>, 馬紹彬 집 대문 밖, 集安博物館 編著, 185쪽

문자 판독과 연구 작업을 병행한 결과 그날 밤 高良田, 董峰, 耿鐵華, 孫仁杰, 李薇, 尙武, 王春燕 등이 공동으로 비문 탁본 연구에 착수하여 97자를 판독해냄으로써 비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집안박물관에서는 전문 가팀을 구성하여 비석 실물과 여러 탁본 판본을 비교해 비석 정면의 문자에 대한 판독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170여 자를 판독해낼 수 있었는데, 그 중 20여 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각자 유보하기로 했다. 여러 학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판독 글자 수는 총 156자인데 그것을 공표했다.¹³⁾

2013년 1월 4일, 마침내 집안박물관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모은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가 『中國文物報』에 실렸다. 다음 날인 1월 15일자 『新文化報』에 『吉林發現高句麗時期記事碑』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다.¹⁴⁾ 같은 달 集安市博物館이 엮은 종합조사보고서 성격의 『集安高句麗碑』가 吉林大學出版社에서 간행되었다.

13) 孫仁杰(2013a), 46-48. ; 孫仁杰(2013b), 222-223.

14) 集安文物局,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 『中國文物報』(北京, 2003. 1. 4. 제2판).

<<http://www.ccrnews.com.cn/102784/90919.html>>.

盧紅, “吉林集安發現高句麗時期記事碑,” 『新文化報』(長春, 2013. 1. 15).

<<http://news.xwh.cn/news/system/2013/01/14/010319191.shtm>>.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표 1> 1행
‘始祖鄒牟王之創基也’ 비교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비

<그림 3> <集安高句麗碑>, 隸書, 427,
고구려, 173×66.5×21cm,
文物報本(周榮順A, 2012. 9. 25)

그 연구팀 가운데 耿鐵華와 孫仁杰은 4월 13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발표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이 발표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자신들의 발표 내용이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먼저 孫仁杰은 “비문은 고국원왕의 건국(元王創基), 후손에 의한 계승(繼任相承), 선왕 공적 추술(先聖追述), 무자

년 정율(戊子律令), 사시제사(四時祭祀), 수묘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중략) 집안 고구려비를 세운 목적은 고국양왕 5년(388) 戊子에 제정한 ‘戊子律令’이라는 법률조항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守墓제도를 규범화하고 수묘인 연호와 관련 율령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先聖’에 대한 ‘追述’자는 마땅히 비석을 세운 주체를 가리키며, 궤‘追述’자는 광개토왕이므로 ‘追述’자는 당연히 장수왕(재위 412-491)일 수밖에 없다”¹⁵⁾고 하면서 건비 시기로 장수왕대를 주장했다.¹⁶⁾

한편 耿鐵華는 ‘비의 출토 상황’, ‘비의 형태’, ‘비의 내용’에 근거하여 위비설에 중지부를 찍고, “광개토왕의 부친 고국양왕(재위 384-391)은 특별한 업적도 없었기 때문에 집안 고구려비는 광개토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세운 수묘인 연호의 비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비 시기를 孫仁杰과는 달리 광개토왕대로 주장했다.¹⁷⁾

한편 4월 9일 연합뉴스는 “지린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張福有는 『中國文物信息网』에 올린 글에서 <集安高句麗碑>에서 읽어냈다는 ‘丁卯歲刊石’(<그림 3> 좌측 상단 흰 박스, <그림 8>, <그림 9>)을 근거로 이 비가 정묘년인 427년(장수왕 15)에 건립되었다”고 전했다. 이전의 문물보본에서는 판독되지 않았던 이 부분을 그는 정밀조사 끝에 그렇게 판독했다.¹⁸⁾ 4월 13일에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발표자인 孫仁杰도 張福有와 같은 ‘丁卯歲刊石’을 주장했다.¹⁹⁾

4월 10일 연합뉴스는 「『광개토왕에서 장수왕으로 물려난 고구려비』라는 제목으로 張福有의 장수왕대설에 관해 다시 상세히 보도했다.²⁰⁾ 기사는 “張福有가

15) 孫仁杰(2013a), 52-53, 73. ; 孫仁杰(2013b), 228.

16) 필자는 “<集安高句麗碑>에 관해 왜 서예학계는 침묵하는가,” 『月刊書藝』 제381호(2013. 5), 144쪽에서 孫仁杰의 장수왕대설과 耿鐵華의 광개토왕대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여기에서 그들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수정한다.

17) 耿鐵華, “中國集安出土 高句麗碑의 眞實性,” 『신발간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a. 4. 13). ; 耿鐵華,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眞實문제,”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b) 참조.

18) 張福有, 『東北史地』, 2013년 3期. ; 張福有, 『社會科學戰線』, 2013년 5期 참조.

19) 孫仁杰은 한국에서 발표한 글에서는 장수왕대설을 주장했다지만, 이미 이전의 판독(『東北史地』, 2013년 3期)에서 ‘丁卯歲刊石’을 읽었다.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0/0200000000AKR2013041022250005.HTML>>.

10일 발표한 <集安高句麗碑> 연구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비의 건립 시기이다. 그는 <集安高句麗碑>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대에 건립되었다는 견해를 내어놓았다. 지난 1월, 이 비석의 발견 사실을 공개할 당시 중국 측이 내세운 광개토왕 건립설을 스스로 철회·수정한 것이다. 나아가 훼손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후면에서도 17자를 새로 판독하여 총 218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190자를 판독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석에서 판독한 ‘丁卯歲刊石’ 다섯 글자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정묘년)에 비가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丁卯歲刊石’이란 ‘丁卯년에 비석에 글을 새겼다’는 뜻이니, 이는 곧 비석이 건립된 연대가 된다”고 적었다.

張福有의 견해가 중국 국가문물국을 통해 공식 보고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 측은 애초에 이 비석이 광개토왕비문의 기록에 근거해 광개토왕이 생전에 특정한 선조 왕의 무덤 관리를 위해 이것을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張福有의 발표는 이런 종래의 주장, 즉 광개토왕대를 뒤집는 것이었다. 張福有와 孫仁杰의 427년 건립설을 따르면 <集安高句麗碑>는 <광개토왕비>보다 13년 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런 발표에 곤혹스럽기는 국내 학계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비석이 알려지자 국내 연구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중국 주장을 의심하지 않고, 광개토왕이 특정한 고구려 선대왕이 묻힌 무덤을 관리하고자 세운 비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지만 중국이 새로운 장수왕 건립설을 밝힘에 따라 비의 건립 시기는 물론이고, 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것은 중국의 공식 입장이므로 중국이 말하는 현재까지의 건비년은 ‘丁卯’년, 즉 427년이 될 전망이 크다. 張福有의 발표 후 사흘 뒤에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발표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외에도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으나,²¹⁾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한 중국의 의견은 크게 광개토왕대설과 장수왕 15년(427)설로 나누어진다.

21) 林沄은 ‘癸卯歲刊石’으로 판독했고, 徐建新은 여덟 번째 글자만 ‘石’으로 읽었다. 『東北史地』(2013年 3期) 참조. 耿鐵華, 孫仁杰, 張福有, 林沄, 徐建新의 판독안은 윤용구(2013b), 25-26, <표 2> 참조.

3.2 한국의 연구 성과

국내에서는 2012년 12월, 이영호 당시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이 처음 비석의 발견 사실을 인지했다. 2013년 1월 4일, 집안문물국이 작성한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가 『中國文物報』에 실린 것을 계기로 한국 학계의 연구 작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16일, 여호규가 한국고대사학회 홈페이지에 『中國文物報』의 기사를 소개했다. 1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차 集安 高句麗碑 검토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월 30일, 검토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서 2월 22일, 고구려발해학회 주최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여기에서도 중국 학계처럼 광개토왕대설²²⁾과 장수왕대설²³⁾이 대두되었으나 전자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3월 13일자 『중앙일보』에 이 비의 한상봉 소장본이 실렸다.²⁴⁾ 그런데 거기에는 문물보본에서는 희미하여 읽을 수 없었던 ‘丁卯年刊石’이라는 글자가 뚜렷했다. 이를 근거로 소장자 측은 건비년을 427년 또는 487년으로 주장했다. 이것은 이후에 밝혀진, 상술한 張福有의 ‘丁卯歲刊石’ 발표보다 앞선 것이라 잠시 학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22) 공석구, “고구려 수묘비의 발견과 몇 가지 해석”; 이용현, “신발견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비교”; 고광의,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형태와 서체”; 조법중, “집안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 (이상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금경숙, “새로 발견된 ‘지안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 (2013. 2).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에 실린 위의 글 중에서 공석구, 고광의 글만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2013)에 게재되었다. 공석구의 제목은 “『集安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考察”이다.

23) 김현숙, “지안고구려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동북아역사문제』 (2013. 2). ; 서영수, “지안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에서는 광개토왕대보다 후대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4) 중국에서도 이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http://tieba.baidu.com/p/2211146171>> ; <<http://bbs.tianya.cn/post-worldlook-701128-1.shtml>>.

필자도 몹시 궁금하여 같은 날 그 탁본을 볼 수 있는지 소장자에게 물었다. 그는 사진 촬영은 금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3월 16일, 몇몇 학자와 더불어 탁본을 실견하고 그 글자들을 확인했다. 4월 8일, 다른 연구자들과 더불어 다시 한 번 그것을 실견했다. 두 차례에 걸친 실견 후 필자는 문물보본과 한상봉본이 다른 것임을 여러 글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사학계는 중국의 의견을 따라 한상봉본을 위본이라 단정했고, 후술하겠지만 원광대 발표회에서도 모각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²⁵⁾ 원광대 서예문화연구소 금석문연구팀도 서체 비교를 통해 두 본이 확연히 다름을 증명했다.²⁶⁾ 그러나 적어도 건비 시기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이 광개토왕대에서 장수왕대로, 즉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던 해인 丁卯年(427)으로 바뀌었다면, 張福有가 읽었다는 ‘丁卯歲刊石’의 ‘丁卯’를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한상봉본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한편 한국고대사학회는 4월로 예정된 발표회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팀이 2013년 2월 22-26일까지 현지답사를 다녀왔다.²⁷⁾ 답사 결과 확보된 자료는 3월 9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비공식으로 진행된 “제2차 지안고구려비 검토회의(판독회)”에서 발표되었다. 필자도 거기에 참석했다. 한국고대사학회 연구팀의 현지답사에서는 발견 지점 등을 탐방했을 뿐, 원석은 물론 탁본조차 보지 못했다. 따라서 판독회는 부득이 『中國文物報』의 周榮順本(이하 문물보본, <그림 3>) 등에 의존해야 했고, 그 결과 판독에 이견도 많았다. 특히 글자 自體를 판독하기보다는 이미 연구되어 학습된 내용에 근거한 추론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4월 13일 개최된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에서는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라는 주제 아래 그간의 정보와 판독안, 연구 결과를 모아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비의 조사와 연구에 직접

25) 학계가 자신의 탁본을 위본으로 단정한 것에 대한 한상봉의 의견은 한상봉, “새로 발견된 中國 集安 麻線高句麗碑,” 『墨家』 제89호(2013. 6), 116-119 참조.

26) 정현숙, 조미영, 이순태, 이은솔, 황인현, “<集安高句麗碑>의 서체 분석,”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검토』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 발표집, 2013. 5. 23).

27) <集安高句麗碑>의 출토와 의의 그리고 그간의 판독 및 조사 과정과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영호,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의 發見과 紹介,” 『韓國古代史研究』 제69호(2013) 참조.

참여한 耿鐵華, 孫仁杰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발표회에서 소개된 윤용구와 여호규의 판독안²⁸⁾(〈표 3〉)은 중국 판독안(〈표 2〉)과 비교하면 새로 밝혀낸 글자들도 있지만 재고해야 할 글자들도 있다. 특히 비의 건립 시기에 관련해 논란의 핵심인 7행 4-8자가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겠다.

여호규는 7행의 머리 ‘丁□’을 광개토왕이 敎言을 내린 연도, 즉 건비년으로 여겨 丁酉年(397) 또는 丁未年(407)으로 보고²⁹⁾ ‘高句麗 最古碑’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광개토왕릉비 찬자가 〈集安高句麗碑〉 문장을 변형하여 운문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비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능비 건립 이전에 〈集安高句麗碑〉가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광개토왕이 처음으로 역대 선왕의 능묘에 석비를 처음 건립한 사실을 고려하면 〈集安高句麗碑〉는 광개토왕대에 건립되었다”고 주장했다.³⁰⁾

5월 23일, 서예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금석문연구회 주관으로 원광대에서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열렸다.³¹⁾ 여기에서 전주선은 7행 4-8자를 ‘丁卯年刊石’으로 판독함으로써 건비년을 중국의 張福有, 孫仁杰과 같은 427년으로 보았다. 원광금석문연구팀도 『〈集安高句麗碑〉의 서체 검토』에서 건비년을 丁卯年으로 보아 〈광개토왕비〉(414)와 〈중원고구려비〉³²⁾ 사이에 〈集安高句麗碑〉를 두고 고구려 서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서체상으로 보면 西漢隸인 古隸가 주를 이루면서 東漢隸

28) 尹龍九,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釋文,”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a. 4. 13), 11.; 余昊奎, “集安 高句麗碑의 構成과 內容,”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a. 4. 13), 118.

29) 余昊奎,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b), 82.

30) 余昊奎(2013a), 123-124. 이외에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호섭, 조우연, 이도학도 같은 자료집 토론문에서 광개토대왕설을 주장했다.

31) 여호규(2013b), 53, 주6.

32)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제설이 있으나, 최근 새롭게 판독된 글자로 인한 문자명왕 4년(495)설과 간지와 날짜를 고려한 장수왕 37년(449)설이 우세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금석문자료집(상)』(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162.

의 특징인 파책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광개토왕비>보다 더 파책이 분명한 동한 예에 가까운 예서로 쓰인 점은 서체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광개토왕대 후인 장수왕대로 보는 근거가 된다. 선주선도 발표회 기념으로 직접 짓고 쓴 제발이 있는 <臨集安高句麗碑>(<그림 4>)에서 서체에 관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³³⁾ 발표회 총평을 맡은 조수현의 의견도 같았다.³⁴⁾ 張福有와 孫仁杰, 그리고 선주선의 ‘丁卯’설 이외에도, 권인한은 문체의 특징으로 보아 장수왕대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비문의 한문은 대체로 넉 자 내외로 끊어지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위진남북조대에 크게 유행한 駢麗文의 문체에 가까운 산문이라는 점에서 광개토왕릉비문에 비하여 세련된 문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비문에는 『逸周書·諡法』 등에 보이는 ‘辟土’라는 표현, 『論語·子罕篇』을 비롯한 漢代 문헌들에 자주 보이는 ‘弥高’라는 표현, 陶淵明의 『感士不遇賦』에 보이는 ‘古人之慷慨’라는 구절 등을 활용한 用事法을 적극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문체상의 세련미를 더한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점은 이 비문의 건립 시기에 대하여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을 듯하다. 이 비문의 한문이 광개토왕릉비문에 비하여 洗練된 駢麗文的 正格漢文을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도연명의 詩句까지 활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문 건립 시기에 대해 장수왕대설에 左袒하고 싶다”³⁵⁾고 말했다. 권인한이 이 비를 장수왕대의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문체가 광개토왕비문보다 더 세련되었다는 점이다. 즉

33) <그림 9>, 제발 5, 6행. “비의 내용인 창업과 계승(創基繼胤) 연호와 제사(烟戶祭祀) 추모의 진술과 새로 고쳐 회복함(追述修復) 매매의 죄과부여(買賣與罪)를 보면 광개토왕비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체로 말하면 자획 또한 광개토왕비와 통하는데 파세를 자못 갖추고 있어 광개토왕비 후에 건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觀其內容, 則「創基繼胤, 烟戶祭祀, 追述修復, 買賣與罪」, 與廣開土王陵碑相聯可知. 書體而言, 字畫亦通陵碑, 頗具波勢, 能測後立).”

34) 이 발표회의 상세한 발표 내용은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관독 및 서체 검토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 -,” 『月刊書藝』 제382호(2013. 6), 114-115.;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위의 글, 『書藝文人書』 제140호(2013. 6), 103-105.; 최영창, “韓·中 원석 탁본 공동 연구만이 논란 풀다 - 지안고구려비 7행 ‘丁卯歲刊石’ vs ‘好太聖王曰’ -,” 『문화일보』(2013. 6. 4), 참조.

35) 권인한, “集安 高句麗碑의 관독과 석문’에 대한 지정 토론,”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문체가 더 진보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圭首인 비의 형태도 자연석인 <광개토왕비>(414)보다 진화된 것으로 이 비가 <광개토왕비>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6월 1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한국고대사학회 제2차 판독회가 열렸다.³⁶⁾ 공식적으로는 최종 판독회가 된 이 발표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표 공식 판독안 여섯 종이 실렸다. <표 2>는 중국 측 판독안이며,³⁷⁾ <표 3>은 한국 측 판독안이다. 전자에서 이전의 것에 부가된 것은 張福有 안이며, 후자에서 부가된 것은 선주선 안이다. 상술하였듯이 두 판독안은 논쟁거리인 7행의 글자를 각각 ‘丁卯歲刊石’과 ‘丁卯年刊石’으로 읽었다. ‘歲’와 ‘年’의 차이가 있으나 둘의 의미는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丁卯 부분이다. 모든 자료를 종합한 중국의 두 학자와 한국의 한 학자는 건비년을 427년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 비는 후속 연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처음의 ‘高句麗 最古碑’의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광개토왕비>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比定되었다.

36) 판독회 동향은 정현숙, “원광대 선주선 <集安高句麗碑> 판독안, 서예학계 공식안으로 인정 - 7행, ‘丁卯年刊石’ vs ‘好太聖王曰’-,” 『月刊書藝』 제383호(2013. 7), 98-100.; 정현숙, 위의 글, 『書藝文人畫』 제141호(2013. 7), 86-91.; 정현숙, 위의 글, 『墨家』 제90호(2013. 7), 124-127 참조. 최영창, “韓·中 원석 탁본 공동 연구만이 ‘논란’ 풀다 - 지안고구려비 7행 ‘丁卯歲刊石’ vs ‘好太聖王曰’-,” 『문화일보』(2013. 6. 4).

37) <표 2>에서 孫仁杰의 판독안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집안박물관 연구팀의 공식 판독안이다. 그의 글과 2012년 11월의 모사본에는 156자인데 166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集安博物館 編著(2013), 40 모사도 참조. 孫仁杰 자신의 판독안은 상술한 『東北史地』(2013年 3期)에 실린 188자이다.



<그림 4> 선주선, <臨集安高句麗碑>, 隸書, 427, 고구려, 2013. 5. 23, 200x140cm, 개인 소장

<표 2> 중국 연구자 석문,
한국고대사학회 2차 판독회 자료집, 2013. 6. 1, 3쪽

耿鐵華 釋文 178字 (『通化師範學院學報』 2013-2, 『社會科學戰線』 2013-5)

1. [惟太王之]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邹牟王之创基也
2. [日月之]子河伯之孙神灵祐护蔽荫开国辟土继胤相承
3. □□□□□□烟户以此河流四时祭祀然而□備长烟
4. [户]□□□□烟户□□□□富足者转卖[韩穆]守墓者以铭
5. □□□□□唯国置上太王□□□□王神□□與东西
6. □□□□□追述先圣功勋弥高悠烈继古人之慷慨
7. □□□□□□□自戊□定律教[遣]发令其修复各於
8. [先王墓上]立碑铭其烟户头廿人名以示后世自今以后
9.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转卖虽富足之者亦不得其买
10. 卖如有违令者后世[继]嗣[并罚]看其碑文与其罪过

孫仁杰 釋文 166字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검토』 2013. 4.13)

1.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邹牟王之创基也
2. □□□子河伯之孙神灵祐护假荫开国辟土继胤相承
3. □□□□各家烟户以此河流四时祭祀然万世悠长烟
4. □□□□烟户□□□□富足□转卖转买守墓者以铭
5. □□□□□□□置□太王□□□□王神□乘與东西
6. □□□□□追述先圣功勋弥高悠烈继古人之慷慨
7. □□□□□□□自戊子定律教□发令其修复各於
8. □□□□立碑铭其烟户头廿人名以示后世自今以后
9.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转卖虽富足之者亦不得其买
10. 卖如有违令者后世继嗣之者看其碑文与其罪过

張福有 釋文 218字 (『名家』 2013-2, 『社會科學戰線』 2013-5)

1. [惟雄在不]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2. [天帝之]子河伯之孫神靈祐護假蔭開國辟土繼胤相承
3. [遠近]舊民各家烟戶以此河流四時祭祀然萬世悠長烟
4. 戶亦專賣烟戶為禁□□富庶擅轉賣轉買守墓者以銘
5. 守墓人飄然唯國置上太王號平安太王神武乘與東西
6. 廿家巡故国追述先聖功勳弥高悠烈继古人之慷慨
7. 此河流丁卯歲刊石自戊申定律教言發令並修復各於
8. 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宣示後世自今以後
9. 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擅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10. 賣向若違令者後世继嗣之者看其碑文与其罪過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표 3> 한국 연구자 석문,
한국고대사학회 2차 판독회 자료집, 2013. 6. 1, 4쪽

尹龍九 釋文 184字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검토』 2013. 4.13)

1.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2. ■■■■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3. ■■■■各(定)烟戶以(安)河流四時祭祀然而世修長烟
4. (戶)□□□烟戶□□□(衰)富足(者)轉賣數□守墓者以銘
5. □□□□王國岡上太王國平安太王神(亡)□興東西
6. (廟)□□□□室追述先聖功勳彌高悠烈繼古人之慷慨
7. □□□好太(聖)王曰自戊午定律教□發令更脩復各於
8. (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9. 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擅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10. 賣如有違令者後世繼嗣□(墓)看其碑文与其罪過

余昊奎 釋文 184字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검토』 2013. 4.13)

1.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2. [日月之]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3. ■■■■□(各墓)烟戶以此河流四時祭祀然而(世)備長烟
4. [戶]□□□烟戶□(劣)□(衰當買)□轉賣(數)□守墓者以銘
5. □□□□(王)□(岡上)太王□(平)□□王神(亡)□(興)東西
6. □□□□(世室)追述先聖功勳彌高悠烈繼古人之慷慨
7. □□□(好太)□(王曰)自戊(子)定律教(內)發令(更)修復各於
8. [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9. 守墓之民不得擅(買)更相轉賣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10. 賣如有違令者後世(繼)嗣□□看其碑文与其罪過

선주선 釋文 168字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2013.5.23)

1. ■■■■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鄒牟王之創基也
2. ■■■■子河伯之孫神□於甄(假 or 遐)熊開國辟土繼胤相承
3. ■■■■各家烟戶以□河流四時祭祀然而世備長烟
4. □□□□烟(戶)□□□□□□轉賣□□守墓者以銘
5. □□□□王(國)岡上太王(國)平(安太)王神(廟不與)東西
6. 廟□□□□室追述先聖(功)勳彌高(然 or 悠)烈繼古人之慷慨
7. □□□丁卯年刊石自戊子定律教內發令更修復各於
8. □□□□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是示)後世自今以後
9. 守墓之民不得□□更相轉賣(趁)富足之者亦不得其買
10. □(如有)違令者後世□嗣□□看其碑文与其罪過

한편, 윤용구와 여호규는 그 글자들을 이전과 같이 ‘好太聖王曰’로 보았다. 서예학계와 사학계의 두 안이 다섯 시간에 걸친 판독회 동안 팽팽히 맞섰으나 결론은 종전과 같았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독회에서 전주선 안을 서예학계의 공식안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것이 고대 문자자료 판독에서 처음으로 실린 서예학계의 안이기 때문이며, 서예 전공자에 의해 글씨로 판독된 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최근인 10월 12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제134회 정기발표회에서 이 비에 관한 두 편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서 홍승우는 “<집안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울령의 형식과 수묘제”에서 비의 건립 시기를 광개토대왕대로 보았다. 반면 김현숙은 “<집안고구려비>의 건립시기와 성격”에서 장수왕대를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광개토왕비>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한 현재까지의 한국의 연구는 광개토대왕설, 장수왕대설, 장수왕 15년(427)설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4. 結構 분석을 통해 본 비의 건립 시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독으로 본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한 한국의 연구는 7행 4-8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好太聖王曰’로 본 광개토대왕대설이고, 둘째는 ‘丁卯年刊石’으로 본 장수왕 15년(427)설이다. 이 장에서는 글자의 비교·분석을 통해 판독을 다시 시도하고 그것으로 비의 건립 시기를 비정해보겠다.

먼저 전자의 경우, 넷째 글자를 ‘好’로 본 것은 글자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38) 6월 1일 거행된 2차 판독회의 諸案은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409-417 참조. 7행의 넷째 글자를 윤선태, 조법중은 ‘好’로 보지 않았고, 필자는 ‘丁’으로 보았다. 다섯째 글자를 고광의, 이용현, 필자는 ‘卯’로 보았고, 조법중은 ‘卯’로 보지 않았다. 일곱째 글자를 이용현과 필자는 ‘刊’으로 보았고, 고광의는 ‘刊’으로 보지 않았다. 여덟째 글자를 고광의, 이용현, 필자는 ‘石’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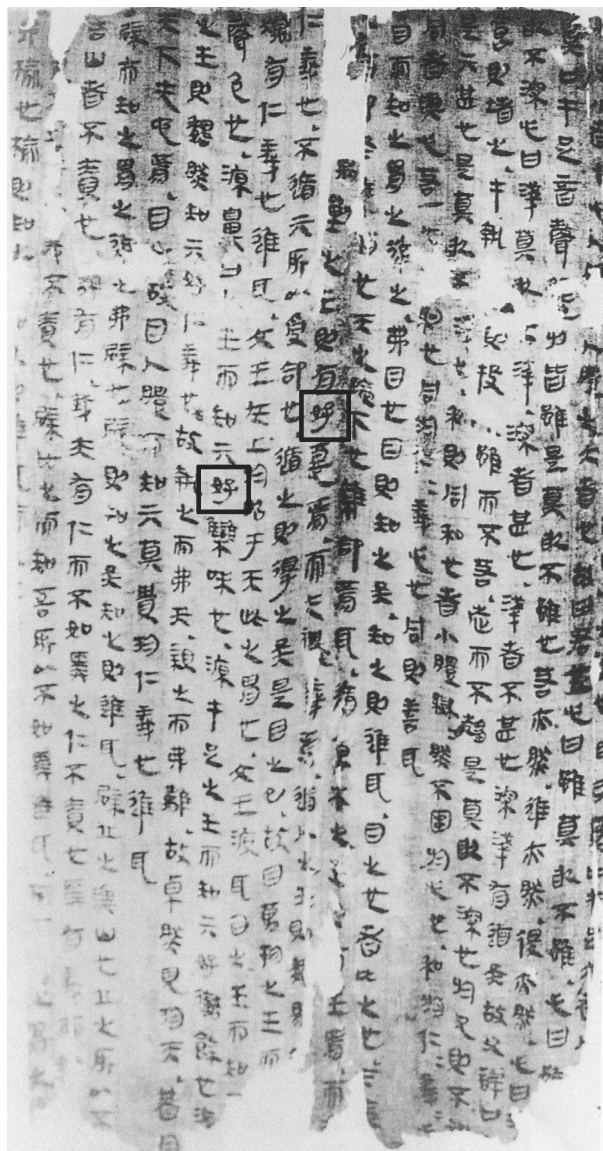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윤용구는 <馬王堆帛書>(<그림 5>)의 ‘好’와, 여호규는 <北海相景君銘>(이하 <景君碑>, 143, <그림 6>)의 ‘好’와 각각 비교했다.³⁹⁾ 마왕퇴묘는 기원전 180-140년 사이의 서한 묘이며, 1973년에 발견된 3호묘에서 帛書가 출토되었다. 이 시기는 秦에서 멀지 않아 그 서체는 진 小篆의 필의를 지닌 古隸와 隸書 두 종이며, 전서에서 예서로의 변천 과정을 잘 보여준다.⁴⁰⁾ 전서의 필의가 많고 실제로 ‘好’도 <표 4>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전서의 필법으로 쓰였다. 세로 界線이 있어 행간은 비교적 일정하나 자간은 일정하지 않은 章法이다. 행간이 좁아 파책이 있는 글자는 그것이 옆이 아닌 아래로 뻗어 글자가 특히 장방형이다. 서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集安高句麗碑>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章法과 結構도 다르다.

<景君碑>는 漢碑 가운데 가장 이른 것으로, 서체는 전서의 필의가 많은 예서다. 方筆의 전서인 <天發神讖碑>(278, <그림 7>)에 가까워 자형은 장방형이며, <馬王堆帛書>와 마찬가지로 전서에서 예서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⁴¹⁾ 이것은 예서 중의 전서에 속한다. 따라서 윤용구와 여호규가 비교한 두 작품은 공교롭게도 전서에 가까운 예서이며, 그래서 그 글자가 전서의 자형의 특징인 장방형이다. 이것은 <표 4>의 전서 <石鼓文> 또는 <說文解字>의 자형이나 결구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마왕퇴A에서는 ‘女’가, 마왕퇴C에서는 ‘子’의 상반부가 전서의 필법이다. 특히 <馬王堆帛書>는 재질이 비단이므로 석비인 <集安高句麗碑>와는 서사 환경이 다르고 따라서 運筆도 筆法도 다르다.

39) 尹龍九(2013b), 39.; 余昊奎(2013b), 66.

40) 蘇士澍 編著, 『中國書法藝術: 秦漢』(北京: 文物出版社, 2000), 52.

41) 康有爲, “分變第五,” 『廣藝舟雙楫』.; 官衍興, 『景君碑』(山東漢碑原拓原大精選)(濟南: 齊魯出版社, 1993); 蘇士澍 編著, 『中國書法藝術: 秦漢』(北京: 文物出版社, 2000), 164.



<그림 5>老子甲本, 馬王堆 3호묘 帛書, 180-140
B.C., 서한, 湖南 長沙

서예학적 관점으로 본 <集安高句麗碑>의 건립 시기



<그림 6> <北海相景君銘>, 隸書, 143, 동한



<그림 7> 皇象, <天發神讖碑>, 篆書, 278, 吳

<표 4> ‘好’자 비교

秦國 石鼓文	西漢 馬王堆A	西漢 馬王堆B	西漢 馬王堆C	東漢 說文解字	東漢 景君碑 (143)	東漢 熹平石經 (175)	東漢 曹全碑 (185)
							

한편 <集安高句麗碑>는 석비이며, 서체는 파책이 있는 예서이나 해서의 필의가 많아 예서에서 해서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형은 표준 예서의 특징인 편방형이 주를 이루고 해서의 필의가 있는 글자들은 정방형이다. <集安高句麗碑>의 글자를 <馬王堆帛書>나 <景君碑>와 비교하는 것은材質, 時期, 書體, 章法, 結構 등 글씨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석비에 예서로 쓰인 동한 후기의 편방형에 파책이 있는 <熹平石經> 또는 <曹全碑>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들은 예서의 범본이며 대표작이므로 고구려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비와 자형, 결구, 필획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이유로 그 글자는 ‘好’가 될 수 없다.

첫째, ‘好’가 되려면 <그림 8>에서 九宮法에 의해 행의 중심선에서 좌우에 같은 비율로 ‘女’와 ‘子’가 놓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女’의 형태도, ‘子’의 형태도 없다. 둘째, <표 4>에서 보듯이 예서 ‘好’가 되려면 어떤 경우라도 가로획이 각각 분리되어 조금 다른 위치, 즉 ‘女’는 위, ‘子’는 그것보다 조금 아래에서 ‘女’와 ‘子’의 몸통을 관통해야 하는데, <集安高句麗碑>의 글자는 제일 윗부분에 가로획이 한 획처럼 길게 이어져 있다. 이것은 ‘丁’의 가로획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나머지 글자들도 마찬가지다. 다섯째 글자도 같은 비 5행의 ‘太’와 비교해 보면 結構에 유사성이 없어 ‘太’가 될 수 없다. <그림 8>, <그림 9>에서 보듯이 ‘太’자의 필획은 한 획도 없다. 특히 <표 5>에서 보듯이 ‘太’가 되려면 첫 획이 수평 또는 上向이라야 하는데 <집안고구려비>의 첫 획은 下向이다. <표 6>의 <광개

토왕비>와 비교해 보면 다수의 의견처럼 ‘卯’가 맞다. 여섯째 글자도 <표 5>의 ‘聖’과 비교해 보면 결구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글자도 <그림 8>에서 중심선의 왼쪽에만 쏠려 있는 획의 형태를 ‘王’으로 볼 수 없으며, ‘刊’의 좌측 부분 ‘干’의 예서 자형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탁본의 ‘王’, <표 5>의 ‘王’과 비교해 보면 九宮法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글자는 탁본이나 반전에서 보면 ‘曰’이 아니고 ‘石’임을 알 수 있다. 7, 8자는 ‘刊石’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好太聖王曰’로 판독한 것은 서법의 기본인 장법, 결구, 자형, 구궁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규는 <集安高句麗碑>의 여러 글자를 표준 예서로 쓰인 <乙瑛碑>(153), <西嶽華山廟碑>(165), <熹平石經>(175), <尹宙卑>(177), <白石神君碑>(183) 등의 한비 글자들과 비교했다.⁴²⁾ 따라서 윤용구와 여호규의 글자 비교 연구는 비교 대상을 선정할 때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 즉 재료, 시기, 서체를 고려하지 않아서 일관성이 없다.

또한 <표 5>처럼 비슷한 시기의 <광개토왕비>의 ‘好太王’, <모두루묘지명>의 ‘好太聖王’과 비교해보아도 공통점이 없다. 부연하자면 서체의 변천 과정으로만 본다면 예서와 해서 사이에 놓인 이 비는 고예와 예서 사이의 <광개토왕비>, 행기가 있는 해서인 <모두루묘지명> 사이에 두어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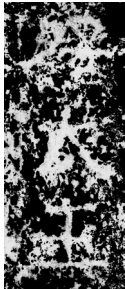
반면, 후자 즉 ‘丁卯年刊石’은 <그림 8>, <그림 9>에서 보듯이 예서로 쓴 글씨로 판독상 무리가 없다. <그림 8>의 중심선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에 ‘丁卯年刊石’이 바르게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두 구궁법에 잘 맞는 결구다. 원석을 정밀하게 분석한 張福有와 孫仁杰이 원석과 탁본으로 읽은 ‘歲’는 중심선 좌우에 대칭되는 결구를 취한 지금의 탁본에서는 ‘年’에 가깝다. ‘刊石’이라는 용어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인 <마운령비>, <황초령비> 첫 행에도 있다.

글자 분석을 통한 판독 이외에도 예서와 해서 사이의 과도기적 결구를 띤 글자, 더 세련된 문체, 자연석보다 더 진화된 圭首의 석비 형태가 건비 시기를 <광개토

42) 余昊奎(2013b), 63-67, <표 3> 참조.

왕비> 이후로 보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集安高句麗碑>의 건비년을 장수왕 15년, 즉 427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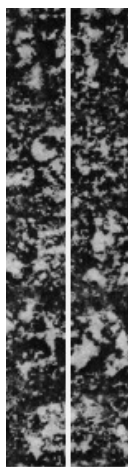
<표 5> ‘好太王’과 ‘好太聖王’

광개토왕비	모두루묘지명
	

<표 6> ‘丁卯年’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비
	

<그림 8>
‘丁卯年刊石’, 7행



<그림 9>
‘丁卯年刊石’ 반전



5. 맺음말

2012년 7월 28일 발견된 <集安高句麗碑>는 2013년 1월 4일 공식 발표에 이어 1월 말 공식 자료가 출간된 후 진위설에 휘말리는 가운데 연구가 진행되었다. 비의 건립 시기에 관해서 초기에는 한·중 학계가 공히 장수왕대보다는 광개토왕대에 더 무게를 실었다. 구체적으로 397년 또는 407년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7행 4-8자를 ‘好太聖王曰’로 판독하여 광개토대왕대에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같은 글자를 ‘丁卯年(歲)刊石’으로 읽어 건비년을 평양으로 천도하는 해인 장수왕 15년(427)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위에서 서체, 장법, 결구, 필획으로 글자 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7행 4-8자는 ‘丁卯年刊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판독과 더불어 해서의 필의가 있는 예서, 더 진화된 圭首의 형태, 더 세련된 문체는 <광개토왕비>(414) 이후의 것으로 보는 보충 증거가 된다.

427년에 건립된 <집안고구려비>는 <광개토왕비>와 <중원고구려비> 사이에 놓인다. 이런 점에서 이 비는 새로운 관점에서 고구려 서예의 흐름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6세기 신라 글씨와 유사한 점도 있어 신라 서예와의 연관성 등 삼국 서예에 관한 연구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다음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

- 耿鐵華, “中國集安出土 高句麗碑의 眞實性.”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 耿鐵華,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眞實문제.”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 고광의. “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형태와 서체.”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 고광의.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 (2013).
- 공석구. “고구려 수묘비의 발견과 몇 가지 해석.”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 공석구. “『集安 高句麗碑』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고찰.”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 (2013).
- 권인한. “集安 高句麗碑의 판독과 석문’에 대한 지정 토론.”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 금경숙. “새로 발견된 ‘지안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 (2013. 2).
- 김현숙. “지안고구려비의 건립시기와 성격.” 『동북아역사문제』 (2013. 2).
- 서영수. “지안 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 서영수. “지안 신고구려비’ 발견의 의의와 문제점.” 『高句麗渤海研究』 제45집 (2013).
- 孫仁杰.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文字比較.”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 孫仁杰. “集安 高句麗碑의 판독과 문자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 余昊奎. “集安 高句麗碑의 構成과 內容.”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 여호규.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 (2013).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검토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 -. ” 『月刊書藝』 제382호(2013. 6). 『書藝文人畫』 제140호(2013. 6)에도 게재.

- 尹龍九.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釋文.”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 윤용구. “集安 高句麗碑의 判讀과 釋文.” 『韓國古代史研究』 제70호(2013. 6).
- 이영호. “集安 高句麗碑의 發見과 紹介.” 『韓國古代史研究』 제69호(2013. 3).
- 이용현. “신발견 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의 비교.”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 정현숙. “<集安高句麗碑>에 관해서 왜 서예학계는 침묵하는가.” 『月刊書藝』 제381호(2013. 5).
- 정현숙. “<集安高句麗碑>의 발견 경위와 한·중·일의 연구 동향.”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검토』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 자료집, 2013. 5. 23).
- 정현숙. “원광대 선주선 <集安高句麗碑> 판독안, 서예학계 공식안으로 인정 - 7행, ‘丁卯年刊石’ vs ‘好太聖王曰’ -.” 『月刊書藝』 제383호(2013. 7). 『書藝文人畫』 제141호(2013. 7) ; 『墨家』 제90호(2013. 7)에도 게재.
- 정현숙, 조미영, 이순태, 이은솔, 황인현. “<集安高句麗碑>의 서체 분석.” 『신발견 <集安高句麗碑> 판독 및 서체 검토』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2013 발표회 자료집, 2013. 5. 23).
- 鄭好燮. “集安 高句麗碑의 성격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신발견 集安 高句麗碑 종합 검토』 (한국고대사학회 제131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3. 4. 13).
- 조법중. “집안고구려비의 특성과 수묘제.” 『신발견 고구려비의 예비적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59차 정기발표회 논문집, 2013. 2. 22).
- 『중앙일보』. 2013. 1. 17, 제2면 ; 2013. 1. 31, 제23면 ; 2013. 3. 13.
- 최영창. “韓·中 원석-탁본 공동연구만이 ‘논란’ 풀다” - 집안고구려비 7행 ‘丁卯歲刊石’ vs ‘好太聖王曰’ -. 『문화일보』(2013. 6. 4).

[중문]

- 康有爲. 『廣藝舟雙楫』.
- 耿鐵華. 『通化師範學院學報』 (2013年 2期).

耿鐵華.『社會科學戰線』(2013年 5期).

官衍興.『景君碑』(山東漢碑原拓原大精選). 濟南: 齊魯出版社, 1993.

盧 紅. “吉林集安發現高句麗時期記事碑.”『新文化報』(長春, 2013. 1. 15).

北方法制報. “集安市麻線鄉村民發現刻字石板疑似文物.”『百度古城集安』(2012. 8. 10).

徐建新.『東北史地』(2013年 3期).

蘇士澍 編著.『中國書法藝術: 秦漢』. 北京: 文物出版社, 2000.

孫仁杰.『東北史地』(2013年 3期).

林沄.『東北史地』(2013年 3期).

張福有.『東北史地』(2013年 3期).

張福有.『社會科學戰線』(2013年 5期).

集安文物局. “吉林集安新見高句麗石碑.”『中國文物報』. 제2판. 北京, 2003.1.4.

集安市博物館 編著.『集安高句麗碑』.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2013.

崔貴東, 劉景雲. “村民發現古文物及時報警受表彰.”『北方法制報』(長春, 2012. 8. 9).

崔貴東, 劉景雲. “麻線鄉村民發現刻字石板疑似文物.”『集安市政府公衆信息網』(2012. 8. 9).